



청송심씨 심벌마크

靑松沈氏宗報

발행인 : 회 장 심갑보
편집인 : 문화이사 심광섭
서울시 중구 을지로30길 47
전 화 : (02)2267-7857
(02)2267-9339
F A X : (02)2269-7755
인 쇄 : 명원인쇄
(02)2277-0245

홈페이지 | www.csshim.or.kr

2015년 1월 30일 제111호

新年辭

희망찬 乙未年の 새해 아침이 밝았습니다



靑松沈氏大宗會 會長 沈甲輔

양은 성격이 순박하고 온순해서 양띠의 해에 며느리가 딸을 낳아도 구박하지 않는다는 옛말이 있을 정도로 평온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계신 29만 청송심문 가족 여러분! 새해에도 내내 건강하시고 家內에 늘 平安과 萬福이 깃들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동안 우리 대종회는 1922년도 창립 이래 전국 宗人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歷代 회장님들의 헌신적(獻身的)인 봉사와 노력으로 많은 업적을 이룩하여 오늘날과 같은 탄탄한 기반(基盤)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역대 회장님들께서 남기신 빛나는 업적을 계승 발전시켜 나아가는 한편, 아직 이루지 못한 숙원사업(宿願事業)들을 올해부터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첫째, 승조돈목 정신과 5처 묘소 및 2 단소 수호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男女老少가 모두 참여하는 전국순회 뿌리고육을 통하여 우리 先祖의 훌륭한 업적과 전통을 심어주고, 특히 젊은 세대들에게 승조돈목(崇祖敦睦)의 미덕(美德)을 대대로 이어갈 수 있도록 가르쳐 훌륭한 가문의 후예로서 긍지를 가지고 가문을 더욱 빛낼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또한, 지역 종회와 파종회 및 종인 탐방을 통하여 일가 간의 화합과 유대관계를 높여 종중(宗中)의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유사와 긴밀한 업무협조를 통하여 5처 묘소 및 2 단소 수호관리(守護管理)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둘째, 종재를 철저히 관리하여 선조께서 물려주신 총유물 수호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44년 전 발전적 개편에 따른 대종회 창립 때부터 감사(監事)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종재관리(宗

財管理)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5처 묘소의 위토를 조사하여 재산목록을 정비한 바 있으며, 대종회는 이를 바탕으로 2013년도에 전국의 종재를 전수 조사하여 관리 누락된 위토를 찾아내고 임차료를 현실화시킨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올해에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위토 소유권 다툼 송사를 빠른 시일내에 잘 마무리하고, 앞으로도 매년 종재실사 계획을 수립하여 총유물(總有物) 수호관리(守護管理)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올해 3회째 시행되고 있는 장학사업이 정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장학사업은 가정형편 등 여건이 어려운 일가 자녀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향학열을 고취시켜 인재를 양성하는 주춧돌이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장학금을 기탁해 주신 파종회와 지역 종회 및 종인 여러분, 매일 자동이체와 익명으로 기탁해 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리며, 독지가(篤志家) 여러분의 정성 어린 성원에 힘입어 앞으로 장학사업의 나래가 활짝 펼쳐질 것입니다.

올해에도 후학(後學)을 적극 지원하여 인재로 육성 발전시켜 우리 종중을 빛내고 나아가 국가의 번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장학사업의 정착과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넷째, 우리 심문의 오랜 숙원사업인 4세조 청성백 정안공 할아버님의 재각 건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전국 종인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4세조 청성백 할아버님은 심씨가문의 위상(位相)을 드높이고, 오늘날 심 씨 자손의 융성(隆盛)을 가져다주신 시조나 다름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당신의 아들과 손자들의 재실(齋室)은 이미 오래전에 위풍당당(威風堂堂)하게 세워져 있는데 반해 청성백 할아버님의 재실은 아직 마련되지 않아 비가 오면 마을회관을 임시로 빌려 초라하게 제향을

모시는 실정이므로 그동안 후손(後孫)된 도리를 다 하지 못한 죄스러움과 부끄러운 마음에 더는 선조님의 재각 건립을 미뤄서는 안 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나해 11월 구성된 재각건립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전국 종인의 중지를 모아 차근차근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종회 재정형편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재각설립기금으로 5천만 원의 거금을 선뜻 쾌척하여 주신 공숙공 종회와 웅섭 회장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헌성금(獻誠金)은 재각설립의 값진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친애하는 전국 심문 가족 여러분! 우리의 숙원사업이 성공을 거두려면 회장단이나 집행부의 노력만으로는 힘들 것이며, 무엇보다 전국 일가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삼한갑족(三韓甲族) 명문의 후예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승조돈목(崇祖敦睦)에 다 함께 참여하여 후손들로 하여금 청송심문의 빛나는 전통을 자손만대에 영원히 계승하고 발전시켜 나가도록 합시다.

지나해 일가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에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리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乙未 元朝
靑松沈氏大宗會 會長 沈甲輔



謹 賀 新 年

일가여러분 乙未年 새해에도 家內 萬福이 가득하시고 萬事亨通 하시기를 祝願합니다!

고 문 : 魚澤 宜斗 相泳 相殷 晶求 龍俊 載鴻 載榮 宇永 大平 漢竣 勳鍾

명예회장 : 宜洛

회 장 : 甲輔

부 회 장 : 宜七 相郁 相錄 相均 贊求 載晁 一用

감 사 : 相烈 周燮 賢輔

집 행 부 : 相和(상임 부회장) 彥泰(총무이사) 載緒(재무이사) 光燮(문화이사)

이 사 : (가나다 順)

유 사 : 相國 相哲 弘燮 遠燮 載龍 正秀 哲裕 洪燮

서 울 : 光輔 光燮 百燮 奉燮 三圭 相慶 相晚 相默 相瑞 相祚 相學 相翰 星求

成輔 曠求 英輔 玉仁 完圭 勇鎭 佑燮 愚龍 愚夏 雄燮 旻燮 元植 殷植

應錫 宜杓 寅燮 載求 載金 載德 載奉 在臣 載澈 載洪 正燮 種福 朱燮

俊輔 重澤 昌輔 春輔 春植 忠澤 泰燮 亨求 勳輔

경 기 : 康燮 光輔 德燮 明燮 文錫 相大 相烈 相英 相雨 上殷 相贊 相濟 相弘

相華 相勳 瑞玲 錫鎔 錫希 聖輔 洵燮 洋燮 良燮 良燮 彥村 榮燮 泳秀

永周 永澤 完輔 龍澤 禹植 元輔 元輔 胤燮 應夏 載根 載滿 載萬 載文

載聖 載烈 載玉 載浩 載勳 宗玉 鍾洪 振裕 昌輔 炯燮 興周

부 산 : 萬仁 成燮 宜景 載德 載榮

대 전 : 揆善 揆燮 宜哲 逸燮 玄根

인 천 : 江水 慶燮 揆成 大植 相圭 相直 相振 錫文 應茂 彝燮 載錫 載善 在安

駿求 炯茂

대 구 : 成澤 楨燮 賢錫 護雄 紅燮 勳

광 주 : 觀燮 揆大 東源 相祐 愚慶 在均 在益 在昊 鍾德 駿燮 鎮植 憲燮

울 산 : 守輔 英求 隆求 應輔

강 원 : 東燮 東出 萬澤 茂植 敏燮 相珉 相昭 相夏 成起 愚弘 仁燮 載求 在澤

載鉉 正輔 春燮

경 남 : 揆實 吉燮 東燮 茂燮 在模 載判 載華 點輔

경 북 : 能光 相國 相東 相完 相燭 秀彥 琬澤 宜石 載根 載德 在叔 載玉 載浩

載洪 花鮮 相學

전 남 : 棋官 棋柏 相佑 貞燮 正植 太守 行燮

전 북 : 揆一 斗燮 相根 尙道 相哲 秀永 秀一 安輔 仁求 載根 載政 載學 鍾根

鍾默 周燮

충 남 : 甲澤 揆燮 永鍾 雲澤 允澤 載令 載重 仲根 仲燮 泓植 洪澤

충 북 : 明彥 相鶴 相昊 成來 仁輔 載德 載武 載福 載榮 載純 中來 興燮

해 외 : 廣燮(일본) 相昱(캐나다)

新年辭

청송심문 모두가 대동단결하여 숙원사업인 4세조 정안공 재각 건립에 동참합시다!



심우영 (沈宇永)

大宗會 顧問
四世祖 青城伯定安公
齋閣建立推進委員會 顧問
前 總務處 長官

우리 대한민국과 대중회의 무궁한 발전과 함께 국내외 청송심문의 가정에 만복(萬福)이 깃들고, 계획하시는 모든 일이 만사형통(萬事亨通)하시기를 소망(所望)하면서 새해 인사를 올립니다.

우리 대중회는 수백 년 전부터 일가들의 일심합력(一心合力)으로 현조(顯祖)님들의 빛나는 유훈(遺訓)인 송조돈족(崇祖敦族) 사업을 계승(繼承)하는 구심적(求心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 중기 명종 때 좌의정을 지내신 통원(通源) 현조계서는 대중세보(乙巳譜, 1545년)를 발간하시면서 '족보를 같이한 사람은 모두가 하나의 근본(根本)에서 만(萬) 가지로 갈라지고, 천(千) 가지의 끝이 한 줄기이니 근본을 알아서 친족(親族)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자.' 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청송심문(靑松沈門)은 한 뿌리이며, 종사발전(宗事發展)에는 무엇보다도 화합이 우선입니다.

구한말(舊韓末) 개혁과 언론인으로서 자주독립을 위해 노력한 '제국신문' 창간을 주도하시고, 내부협관(內部協辦 = 現 內務部 次官)을 지내신 상익(相翊) 현조계서는 경신보(庚申譜, 1920년)를 발간하시면서 청송심씨종중 재산을 영원히 보존하고 수호관리를 위해 5처 묘소의 묘산도(墓山圖)와 면적, 위토 내역을 상세하게 명기(明記)해 놓으셨습니다.

총유물(總遺物)의 보존과 수호관리는 청송심문(靑松沈門) 모두의 의무입니다.

현 대중회가 현조님들의 염원이신 송조돈족(崇祖敦族)과 총유물의 보존 및 수호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을 전국 일가분들께서는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임(前任) 의탁(宜洛) 회장님께서 심문용성(沈門隆盛)의 초석(礎石)이 될 사업으로 추진하신 대중회 장학사업은 전국 일가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聲援) 속에 성공적으로 정착(定着)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난 40여 년간 대중회를 위해 봉사해 오시다가 작년에 취임하신 현 갑보(甲輔) 회장님께서 심문(沈門)의 숙원사업인 4세조 청성백(靑城伯) 정안공(定安公) 재각의 건립을 역점 사업으로 발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공적인 재각 건립을 위하여 「4세조 청

성백정안공재각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했고, 위원회에서는 지난해 11월 연천(漣川) 정안공 묘소 옆에 명당(明堂)자리를 택해 재각 건립 위치를 선정(選定)하였습니다.

전국의 일가 여러분 !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듯이 4세조 정안공 할아버지는 청송심문을 명문가(名門家)로 세워주신 명조(名祖)이십니다. 그러나 아직 시향(時享)을 모실 재각(齋閣)이 없다는 것은 후손으로서 죄송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시작이 반(半)이라고 했습니다. 십시일반(十匙一飯)이라 했습니다. 이제 우리 청송심문 모두가 대동단결(大同團結)하여 저력을 발휘할 때입니다. 갑보 회장님의 역점 사업이자 우리 청송심문 모두의 염원인 정안공 재각 건립에 동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올해 2015년 을미년(乙未年)은 평화와 온화함의 상징인 양(羊)의 해입니다. 국내외 일가 여러분의 가정에 평화가 깃들고, 정안공(定安公) 명조(名祖)님의 재각이 성공적으로 건립되기를 기원하면서 새해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乙未 元祀

청성백정안공 재각건립추진위원회 고문 심우영 拜

宗報編輯委員會 定期會議 開催

전국에서 참석한 종보 편집위원들이 2014년 12월 6일(토) 11:00 대중회 사무실에서 종보편집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현재 발행되고 있는 종보에 대한 진취적인 의견과 종보 발송의 형태 등에 대한 토론, 그리고 더욱 알찬 소식지의 역할에 매진하여 대중회가 발전하는 매개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의식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특히 안성의 청화부원군과 종중과 관련된 많은 문제점에 대하여 그동안 종인들의 강력한 요구에 대한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게재된 기사를 통해 지금의 상황을 알 수 있었으므로

이는 지속해서 심층적인 게재를 진행해야 함을 강조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또한, 이미 몇 차례에 걸쳐 게재한 내용은 종보 편집위원회가 자주 소집 개최되지 못하는 점을 보완하는 사항으로 이미 게재된 청화부원군과종중 관련 모든 내용은 종보편집위원회의 결의로 결정되어 보도한 것으로 추인 결의하는 열성적인 참여 의식을 확인할 수 있었고, 종보편집위원 모두의 책임감을 통감하고 알찬 종보 편집에 매진하겠다는 뜻을 함께한 자리였습니다.

靑松沈氏大宗會



왼쪽부터 선규, 성기, 석문, 광섭 간사, 재석, 민섭, 동섭, 수영

안성 관련 소송 및 묘산에 설치된 불법묘지에 대한보고

1. 소송문제에 관하여

현재 안성 소재 위토 등과 관련된 소송은 27건 정도가 진행되었는데 대중회에서는 일가들 간에 소송해서는 안 된다는 대 원칙을 철저히 지키기 위하여 노력하면서 제소해오는 소송을 최소한의 여건으로 주로 방어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제 안성의 소송은 경주 종인, 그 아들 의선, 심호섭 등 3~4명이 주축이 되고 부화뇌동하는 2~3인이 주도하는 사건이며, 이는 사건도 아닌 소란행위라 함이 옳겠습니다.

대중회 임원들이 당왕동 소재 재실에 들어갔다고 '특수주거침입'으로 고소한 사건이 평택지청에서 '무혐의' 결정되자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한 사건이 또 '무혐의' 처분되었으며, 1층 사무기기 임차인 김XX는 재실을 경매 신청하였으나, 그 절차가 적법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취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대중회에서 모든 일을 의연하고 정도로 처리하고 있으며, 안성의 몇 사람이 소송에 몰입되어 있으나 그들 주장대로 진행된 것은 아직 한 건도 없으니 일가 여러분의 많은 응원을 당부드리며 모든 일은 정의가 승리하는 순리대로 정립될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2. 불법 설치된 묘지에 관하여

안성시 도기동 산64번지에는 靑松沈氏 三世祖 靑華府院君 配位 金氏 묘소가 있는 종산입니다. 대중회에서는 이 산에 설치된 분묘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巡山한 결과 사진(1)과 같이 府夫人 金氏 묘소로부터 불과 약 130미터 인근에 대형 墓地 群 사진(2)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묘지군은 길이 약 55m 폭 약 25m 총 약 1375㎡ (약 420평)이며 이곳에 설치된 묘지는 2004년도에서 2005년도사이에 산림을 훼손하고 묘지를 설치해 조성했습니다. 또한, 이 墓地 群에 드나들기 위하여 길이 약 300m 폭 약 2.5m 합계 약 750㎡ (약 230평)의 산림도 훼손해 묘역진입도로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당시 대중회 집행부에서는 이렇게 기준 없이 마구 조성된 墓地 群에 대한 사항을 모르고 있었던 것인지? 어떻게 관리를 했었는지? 이 종산에는 이렇게 묘지를 마구 설치해서는 안되는 종산이므로 묘지의 연고자는 2015년 3월 30일까지 이 묘지를 어떻게 설치했는지의 경위서와 앞으로 이 묘지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대중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그렇지 않을 경우 부득이 관계관청에 의뢰해 법에 따라 조치할 수밖에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회



3세조비 묘소와 인근 묘지군 위치



묘지군의 위치 및 진입도로 현황



고려장(高麗葬)은 없었다!



심재석
문학박사
중보편집위원

1. 고려장이라면 늙은 부모를 버리는 의미로 알려져 있다. 고려시대(918~1392)에 고려장이라는 풍습이 있었다는 것인데, 이를 사람들은 의심 없이 받아들여거나 말하는 것을 자주 본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고려장은 우리 역사에서 없었다.

2. 그런데 왜 고려장이라는 얘기가 나왔을까? 두 가지를 상정할 수 있다. 하나는 일제강점기에 조선총독부의 악의적인 발상에서 시작되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생각한다. 또 하나 상정이 가능한 것은 불교경전 중에 「잡보장경」의 기로국 설화에서 오인된 듯하다. 기로국에서는 나이 든 부모를 버렸다는 것인데, 이 기로국의 발음이 고려국과 비슷한 까닭에 기로국의 풍습이 '고려장'으로 굳어지면서 고려장이 실제 있었던 것으로 오인된 듯하다.

3. 고려장은 없었다는 증거

1) 효의 나라 '고려'에서 부모를 버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 고려는 불교가 널리 확산된 시기였고, 불교 경전 중에 부모님의 은혜를 설편한 「부모은중경」이나, 부모님 은혜를 갚기 위해 목련존자가 지옥에 가서 어머니를 구제한다는 줄거리의 「목련경」이 많이 읽혀지고 있었다. 그런 효를 중시하는 분위기가 팽배한 고려에서 부모를 버리는 일은 상상도 하기 힘들다.

2) 고려는 국가가 불효자를 처벌했다 - 고려는 반역죄와 더불어 불효자를 엄격히 처벌했다. 예컨대 "낭장 서오(徐敖)라는 사람이 어머니의 부고를 받고도 술을 마시고 고기를 먹는 행동

을 하자, 그를 잡아 가두고 영원히 관직에 등용치 않게" 했다.

3) 국가가 효를 권장하고 칭송했다

(1) 고려 초기인 성종 대에 효행을 표창한 사례를 들어본다. 운제현 지불역 차달(車達) 삼 형제는 결혼도 하지 않고 어머니를 극진히 봉양했다. 경주 연일현 정강준(鄭康俊)의 딸과 개경 송흥방 최씨녀는 과부가 됐으나 개가 하지 않고 효성을 다해 시부모와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 절충부 별장 조영(趙英)은 모친을 자기 집 후원에 장사지내고 조석으로 제사 지낸다. 이 같은 사실을 보고받은 성종은 그들에게 정표문려(旌表門閭)하고 요역을 면제해주었으며 곡식 100석, 銀사발 2개, 채색비단과 麻布 68필을 하사했다. 이는 국가가 효를 강조한 것이며 '고려장'의 허구성을 잘 보여주는 사례일 것이다.

성종은 서경(평양)을 방문하여 평민 남녀로 100세 이상 된 자에게는 마포(麻布) 20필, 벼 10석을 하사하였다. 여기서 국왕이 100세 이상 된 노인을 찾아 극진히 봉양하였다. 노인을 극진히 모신 사실에서 우리는 고려장의 존재가 허구임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다.

(2) 최부백(崔裴伯)의 효행 - 수원 아전의 아들인 최부백은 부친이 호랑이에게 물려 죽자, 그 원수를 갚기 위해 도끼를 들고 산에 올라 호랑이를 죽이고 그 뱃속에서 부친의 육신을 꺼내 장사 지냈다. 이 얘기는 고려시대의 孝行을 잘 보여주는 사례로, 조선시대에 편찬된 삼강행실도에도 내용과 삽화가 실려 있다. 부친을 장사지낸 최부백은 무덤 옆에 움막집을 짓고 지켰다. 이러한 얘기가 널리 전승되고 칭찬 되었던 시기가 고려시대인 것이다. 이런 나라에 부모를 버린다는 풍습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3) 관리 휴가 규정 - 「고려사」 형법지의 「관리휴가」 규정에 보면, "모든 문무 관리들의 부모가 70세 이상이면 형제가 없으면 지방관으로의 발령을 금지하였다." 이 기록에서 부모 나이 70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바, 민약에

고려장이라는 풍습이 있었다면 그 노인은 이미 산에 버려졌어야 옳은 것이다.

(4) 고려장에 관한 자료, 기록, 그리고 고고학적인 증거가 전혀 없다 - 고려시대는 475년이나 존속한 왕조이다. 그 시기에 풍습으로 행해진 고려장이 있었다면, 전국 어딘가에 유골이 다수 발견되는 장소가 있다든가 아니면 그런 전설을 간직한 지방의 얘기들이 전해져야 마땅하다. 그러나 고려장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유적이나 전설은 전혀 없는 것이다.

그리고 고려의 문인들이 남긴 수많은 문집과 글들, 그 어디에도 고려장에 관한 언급이 없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고려시대에 '고려장'이란 애당초 어불성설임을 확인케 된다.

4. 결국 일제가 왜곡한 것이다 - 그렇다면 '고려장'은 어디서 나온 말인가? 우리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시기가 할 일제시대(1910~1945)에 조선총독부가 발간한 「전설의 조선」(1919)에 '불효식자(不孝戾子)' 얘기가 바로 고려장의 원조격이다. 그리고 조선총독부가 편찬한 「조선동화집」(1924)에 '어머니를 버린 남자' 편 역시 우리 역사에 없는 고려장 얘기를 집어넣어 왜곡한 것이다. 아마도 일본에 전해지는 '노인을 갖다 버린 산' 전설 즉 오모스테산 전설을 조선에 들여와 '고려장'을 만들어 낸 듯하다.

일제는 '고려장' 처럼, 없는 사실을 마치 있는 것처럼 널리 유포시킴으로써 한국인 스스로 자신을 비하하고 멸시하도록 했던 것이다. 악랄한 일제 식민통치의 실상을 여기서도 보게 된다.

5. 더 이상 오류가 확산돼서는 안 된다 - 우리 심문의 일가들은 어느 모임에서든 '고려장'이라는 용어가 나오면, 그런 풍습은 우리 역사에서 없었다고 얘기하고 더 이상 쓰지 말 것을 강조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孝와 忠를 강조하고 실천해 온 민족이다. 더 이상 아무 근거도 실체도 없는 '고려장'이라는 용어가 사용돼서는 안 될 일이다.

沈영감의 심민설



- 헤민 스님의 좋은 글 중에서 -

살의유려

프랑스 교포 3세 이야기

안녕하세요?

프랑스 교포 3세 서명석입니다.

저 한국에 온지 몇 년 됐어요.

저 처음에 한국 왔을 때 한국은 간식도 너~무 무서운 거 같았어요.

저 점심 먹고 왔더니, 과장님이~

"서명석! 입가심으로 개피사탕 먹을래?" 했어요.

저 한국 사람들 소피국 먹는거 알았지만

개피까지 사랑으로 먹을 줄 몰랐어요.

저 드라큐라도 아니고 무슨 개피로 입가심 하나요, 싫타~~고 했더니

과장님이 "그럼 눈깔사탕은 어때?" 하셨어요~~

저 너무 놀라서 "그거 누구꺼냐?"고 했더니

과장님 씨~익 웃으면서...

"내가 사장꺼 몰래 빼왔어~" 했어요.

저, 기절했어요~~ 눈 떠 보니 과장님 저 보면서

"기력 많이 약해졌다며 몸보신 해야 한다고 자기집으로 가자" 고 했어요.

그래서 저 너무 불안해서 "무슨 보신이나?" 했더니...

과장님 저 어깨를 툭치시며 "가자, 가~서 우리 마누라 내장탕 먹자" 했어요.

저 3일간 못깨어 났어요...

식당 간판 보고 더 놀랐어요.

할머니 뼈다구 해장국~ 미칠뻔 했어요~

근데 이거 보고 완전 돌아버렸어요~

할머니 신채 비빔밥!!!!

- 대중회 관리부장 -



인생길에 내 마음 꼭 맞는 사람이 어디 있으리...

난들 누구 마음에 그리 꼭 맞으리?

그러려니 하고 살자.

내 귀에 들리는 말들 어찌 다 좋게만 들리랴?

내 말도 더러는 남의 귀에 거슬리리니

그러려니 하고 살자.

세상이 어찌 내 마음을 꼭 맞추어 주랴?

마땅찮은 일 있어도

세상은 다 그런 거려니 하고 살자.

사노라면 다정했던 사람

멀어져 갈 수도 있지 않으랴?

온 것처럼 가는 것이니

그저 그러려니 하고 살자.

무엇인가 안되는 일 있어도 실망하지 말자.

잘되는 일도 있지 않던가?

그러려니 하고 살자.

더불어 사는 것이 좋지만

떠나고 싶은 사람도 있는 것이다.

예수님도 사람을 피하신 적도 있으셨다.

그러려니 하고 살자.

사람이 주는 상처에 너무 마음쓰고

아파하지 말자.

세상은 아픔만 주는 것이 아니니

그러려니 하고 살자.

누가 비난했다고 분노하거나 서운해 하지 말자.

부족한데도 격려하고 세워주는

사람도 있지 않던가?

그러려니 하고 살자.

사랑하는 사람을 보냈다고

너무 안타까워하거나 슬퍼하지 말자.

인생은 결국 가는 것

무엇이 영원한 것이 있으리...

그러려니 하고 살자.

컴컴한 겨울 날씨에도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자.

더러는 좋은 햇살 보여 줄 때가 있지 않던가?

그러려니 하고 살자.

그래, 우리 그러려니 하고 살자.

종인 소개

menu01 menu02



심웅섭(沈雄燮)
공숙공종중(恭肅公宗中) 회장

- 동국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KCC 국내사업 총괄본부장
- KCC 삼임이사

6세조(六世祖) 공숙공(諱:澹) 선조님께서는 조선시대 제5대 임금인신 문종(文宗) 때 등용(登用)되시어 제9대 성종조(成宗朝)까지 조정(朝廷)의 중심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신 선조님이시다. 공숙공의 부친(父親)이신 안효공(諱:溫)께서는 4대 세종(世宗) 때 영의정을 지내셨고, 조부(祖父) 되시는 정안공(諱:德符)께서는 2대 정종(定宗) 때 좌정승을 지내셨으며, 공께서는 7대 세조(世祖) 때 영의정에 제수(除授)되시어 3대(三代)가 정승에 오르시게 되었다. 이로써 청송심문은 명실공히 삼한(三韓)의 으뜸인 삼한갑족(三韓甲族)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공숙공 종중은 29만 심문의 34%를 차지하는 거대한 종중이지만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종중은 여러 가지 난제(難題)를 안고 있었다. 그런 상황에서 웅섭 회장이 2011년 회장에 피선된 후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희생과 봉사정신과 투철한 기업경영식 운영으로 지금은 전국 어느 종중 못지않게 활기차고 명실공히 종중다운 종중으로 정립(正立)시켜 놓았다.

이제 이러한 웅섭 회장을 소개하고자 한다. 웅섭 회장은 파주시 월면면 도내리 공숙공 선조님의 묘하자손(墓下子孫)이다.

조부(諱:驍驍)에 이어 부친(諱:相夏)께서는 공숙공 종중 유사직을 수행하시면서 송조돈족(崇祖敦族)을 몸소 실천하셨기에 일가들로부터 칭송이 자자하였으며, 웅섭 회장께서는 선친들의 모습을 보면서 올곧게 성장하여 자연스럽게 송조사상을 이어받게 되었다.

웅섭 회장은 동국대학교 무역학과를 졸업하고 국내 굴지의 건축자재 업체인 KCC 그룹(前 현대그룹 계열사)에서 삼임이사를 역임하며 산업 근대화의 일익을 담당하였다.

정년퇴임 후 고향인 본가에 돌아와 집안 대소사(大小事)를 거두면서 생활하던 중 공숙공 종중이 많은 어려움에 봉착해 있으니 종중 재건에 앞장서 달라는 다수 일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2011년 회장으로 선출되고 공숙공 종중을 이끌고 있다.

회장 피선 후 남다른 열정으로 사심(私心) 없이 종중을 이끌어가면서 선도적으로 종사를 개혁하고 시대적 흐름에 맞게 조율해가고 계신다. 웅섭회장은 종사업무에 모델이 되시는 분이기때 격려와 찬사를 보내면서 그동안 수행한 업적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공숙공 묘역 및 주변 정화 사업을 펼치다

'선조 없는 후손 없다'는 기치로 공숙공 묘역을 할



잘 정화된 공숙공 묘역

아버지의 품계(品階)에 맞게 정화사업을 펼쳐어 관리하고, 유실위기에 있는 선조님들의 묘소는 천장(遷葬)하였으며, 공숙공 유모 묘소까지도 사초(莎草)를 하여 영의정의 유모가 지녀야할 품위를 유지하고 그 은덕(恩德)을 기리고 있다.

둘째. 손망실 위기의 종재(宗財)를 회수하고 종중을 건전재정으로 구축하다

직전 종중 집행부와 소위 가칭 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해 그동안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종중 토지매매, 또는 근거당 설정 등으로 손(損) 망실(亡失)된 재산을 송사(訟事)과정을 통해 말끔하게 회수하고 정리했다.

그로 인한 송사가 무려 100여 건에 달하고 손실된 종재를 회수한 금액도 40여억 원에 달한다고 하지만 회장은 총무의 업적이라고 하나 현 회장의 지휘책임 하에 이루어진 성과임은 분명하고 국가 명의로 등기된 토지를 종중 명의로 회수하는 등 가시적으로 나타난 종중의 이익은 수십억여 원에 달한다 할 것이다.

회수된 종중 자금은 현금 보유를 지양(止揚)하고 종중회관 구입과 창고를 지어 임대수입 증대로 인하여 그간 어려웠던 종중재정을 건전재정으로 구축해 가고 있다.

셋째. 종사를 선도적(先導的)으로 개혁하다

누구나 만들어진 길 걷기는 수월하다. 그러나 새로운 길을 만들거란 순탄치만은 않다. 그러나 웅섭 회장께서는 끊임없이 새로운 길을 개척해가듯이 시대적 흐름에 맞게 종회를 선도적으로 이끌어가는데 앞장서서 종중을 개혁하는 개척자로서의 책임을 완수해가고 있다.

지금까지의 사회적 통념을 깨고 시대적 조류에 맞게 개선해가는 사례를 열거해 보면,

① 제향일을 조정하여 공숙공 부친이신 안효공께 먼저 예(禮)를 올린다

공숙공과 안효공은 절사일(節祀日)이 같은 날이기에 부친이신 안효공 절사를 먼저 모시고 3일 뒤로 제향일을 변경하여 예를 갖추고 많은 제관(祭官)들이 참례하도록 제향일을 조정하여 봉행(奉行)하고 있다.

② 기제 봉행시간(忌祭 奉行時間)을 변경하다

기제(忌祭)에 많은 후손이 참례하고 일가들 간의 화합과 단결도모에도 큰 효과를 거두기 위하여 과감하게 기제 봉행시간을 변경하였다. 기제(忌祭)는 돌아가신 전날 밤 자시(子時)(23:00-01:00)에 봉행하는 것이 예법이나 오늘 같은 사회구조에서 전통예법으로 절사를 봉행하기 어려운 여건을 고려하여 가정의례 준칙을 준용(準用)하여 돌아가신 당일 저녁 시간대인 7시로 시간을 변경 조정하였다. 그 결과 원근(遠近) 각지에서 종전의 배(倍)에 달하는 일가들이 참례 할 수 있게 되었다.

③ 공숙공 묘소 참배객에 감사의 예(禮)를 표하다

평소 공숙공 묘소를 참배하는 참배객을 위해 선조님의 행적을 소개한 소책자와 기념수건을 항시 준비하여 답례하고 있으며, 향사에 참여하는 종인에게 봉송(封送)을 떡으로 준비하여 향사에 미처 참여하지 못한 가족들에게도 함께 참여하는 의미를 부여하여 일체감을 조성하고 있다.

④ 공숙공 후손들을 위한 자연 장지(自然 葬地)를 마련하다

최근 묘지 사용에 대한 엄격한 규제와 법률 강화로 곤란해져 가는 장례문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묘지의 사후관리 및 일반적 정서에 맞게 자연 장지 2000㎡(600평)를 조성하여 천장(遷葬)은 물론 신장(新葬)까지 가능하도록 공숙공종중 후손들을 위한 공원묘지(公園墓地)를 조성(造成)하였다.

넷째. 공숙공 선조님의 덕업(德業)을 추모선양(追慕宣揚)하기 위한 기록물을 발간하다

조선왕조실록에 1,422회나 수록된 공숙공에 대한 기록을 2년 여의 장기간에 걸쳐 발췌 번역해 '조선왕조실록 중의 심 회 자료'를 상(555페이지) 하(504페이지) 2권 1집으로 발간해 공숙공의 덕업(德業)을 후손들이 빠르게 알고 계승해 현조(顯祖)의 명예를 드높이고 후손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느끼게 했다.

다섯째. 대소 종중 종사를 거시적 안목으로 바라보면서 예와 도리를 갖추어 옳은 일에는 적극적이다

① 대중회 전 의락 회장님의 후손 영재육성(英才育成)을 위해 장학사업을 전개(展開)하실 때 웅섭 회장께서는 "우리 다 함께 손에 손을 잡고 뜻깊고 보람 있는 장학사업에 다함께 참여하자"고 기고(寄稿)하여 전국 종인들로부터 찬사(讚辭)와 더불어 많은 동감(同感)을 불러일으켰다. 정성 어린 장학기금은 장학사업의 씨앗이 되어 청송심문(靑松沈門)의 옥토(沃土)에 뿌려져서 1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될 것이다.

② 갑보 현 회장님의 역점사업인 청성백(靑城伯) 정안공(定安公)(휘:德符)의 재각 건립추진에 6세조 공숙공도 손자이시니 입지와 직분에는 미치지 못하는 못하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피력하시고 공숙공 종회의 넉넉지 못한 재정에도 불구하고 임원님들의 한결같은 염원(念願)을 모아 5천만 원을 첫 번째로 헌성(獻誠)해 주셨다.

③ 김포의 사인공(諱:順門) 종회는 공숙공 선조님의 손자님인데 여러 우여곡절이 있어 종중이 어려워 시향(時享)도 드리기 어렵다는 소식을 접한 후에는 시향(時享)에 도움을 주기 위한 각고(刻苦)의 노력을 하고 있다.

이 외에도 많은 업적이 있으나 한정된 지면상에 모두 다 소개할 수 없는 아쉬움을 표하며 웅섭 회장의 업적을 제대로 알려 드리지 못한 점 송구하게 생각하며 졸필을 줄이려 합니다.

웅섭회장님!
탁월하신 능력으로 계속 종사(宗事) 발전에 더 큰 역할을 해주시고, 을미년(乙未年) 새해를 맞이해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15년 1월 1일
취재 및 대담 : 載緒 재무이사

차기 종인 소개 예정

■ 2015년 3월호

심천보 (상록수 저자 심훈(심대섭)손자)
취재·대담 : 광섭 문화이사



매수한 공숙공종중 회관



재각 건립 헌성금 5천만 원 전달 공숙공종중 雄燮회장

朝鮮王朝 品階와 大韓民國의 官職 對照 및 內外命婦 封爵名

조선시대의 품계(관직)와 대한민국의 관직, 봉작명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품 계	계	관계명	조선시대의 관직	대한민국의 관직	외명부	위계구분
정1품	상계	대광보국승록대부	대군, 군,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영사, 도제조	국무총리, 대법원장, 국회의장, 헌법재판소장	정경부인	당상관
	하계	보국승록대부				
종1품	상계	승록대부	좌찬성, 우찬성, 판사, 제조		국회부의장, 부총리	
	상계	승정대부				
정2품	상계	정헌대부	이조판서, 호조판서, 예조판서, 병조판서, 형조판서, 공조판서, 좌참찬, 우참찬, 5위도총관, 한성판윤, 지사, 홍문관대제학, 예문관대제학, 총리영사, 제조		장관, 서울시장, 대장	
	하계	자헌대부				
종2품	상계	가침대부	대사헌, 동지사, 5위부총관, 한성좌윤, 한성우윤, 개성유수, 겸사복장, 내금위장, 상선, 제학, 관찰사, 수어첨사, 부윤, 포도대장, 병사, 중군, 대장, 제조	중장	중장	
	하계	가신대부		차관, 도지사, 소장		
정3품	상계	통정대부	도승지, 좌승지, 참의, 대사간, 첨지사, 도정, 참찬과, 부제조, 부제학, 성균관대사성, 우림위장, 훈련원도정, 별장 천총 중군 기사장 진영장, 목사, 수사, 병마절도사, 병마수군절도사, 장예원판결사	관리관, 광역시장, 준장, 총장, 기관장	숙부인	
	하계	통훈대부	정, 직제학, 상호군, 승문원판교, 사옹원제거, 통례원좌통례	제주지사		
종3품	상계	종직대부	사간, 사헌부집의, 부정, 홍문관판주, 성균관사성, 승문원참교, 대호군, 도호부사, 사옹원제흥, 통례원상례, 병마우후첨절제사		이사관, 특정시장, 학장, 국장	
	하계	종훈대부				
정4품	상계	봉정대부	의정부사인, 사헌부장령, 참수, 홍문관 예문관 응교, 성균관관사예, 예빈시제검, 군수, 만호, 호군, 병마동첨절제사		령인	
	하계	봉열대부				
종4품	상계	조산대부	경력, 첨정, 한성서윤, 제검, 호군		부이사관, 시장, 중령	
	하계	조봉대부				
정5품	상계	통덕랑	검상, 지평, 정랑, 이조정랑, 병조정랑, 헌납, 전수, 별좌, 직감, 찬의, 교리, 문학, 전훈, 세자익위사 좌익위 우익위, 장예원사의, 사직		서기관, 정교수, 부장	
	하계	통선랑				
종5품	상계	승의랑	도사, 별좌, 고령, 서령, 부교리, 부사직, 좌어사, 우어사, 현령, 종사관	소령	사무관, 차장	
	하계	승훈랑				
정6품		선교랑	좌랑, 주부, 정언, 감찰, 별제, 수찬, 전직, 교검, 사서, 사모, 사과, 좌익찬 우익찬, 사평, 장원, 평사	대위, 과장	의인	
종6품		선무랑	교수, 주부, 재부잡, 부전수, 별제, 부수찬, 사축, 선화, 부장, 부사과, 좌의술, 우의술, 신화, 사지, 현감, 할방, 병마절제도위, 감목관, 좌장사 우장사, 수문관, 종사관	부교수		
정7품		무공랑	주서, 찬군, 사안, 박사, 봉교, 전율, 설서, 좌부술, 우부술, 사정	조교수, 주사	안인	
종7품		계공랑	직장, 선부, 전회, 부사안, 산사, 부전율, 선회, 부사정, 조기, 공제, 명물, 신과, 좌종사, 우종사			
정8품		통사랑	사록, 부직장, 사포, 별검, 저작, 시교, 학정, 전음, 사맹, 좌시직 우시직, 신금		서인	
종8품		승사랑	봉사, 훈부, 전곡, 상문, 부사포, 계사, 공조, 부전음, 상도, 별검, 상사, 부사맹, 이기, 심음, 부신금	소위		
정9품		從仕郎	임부, 사소, 산학훈도, 부봉사, 정자, 검각, 학록, 전승, 천문훈도, 지리훈도, 명과훈도, 의학훈도, 한학훈도, 풍학훈도, 왜학훈도, 여진훈도, 사옹, 좌세마 우세마, 율학훈도, 신수	경장, 상사, 중사	儒人	
종9품		將仕郎	참봉, 팽부, 부사소, 회사, 공작, 학한, 부정자, 부전승, 지도, 부사옹, 족기, 검율, 부신수, 역승, 도승, 권관, 초관, 척후, 심약, 현승, 별장, 진사, 생원, 초시, 학생, 처사	감사, 순경, 하사		

올해엔 누구나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

어떤 화가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화폭에 그려보겠다고 마음먹고 길을 나섰습니다. 그는 여행을 다니면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에 관해 물어보았습니다.

하루는 어떤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입니까? " 믿음입니다."

이번에는 지나가는 군인을 붙들고 물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입니까? " 평화입니다."

이번에는 신혼여행을 떠나는 신혼부부에게 물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 사랑입니다."

화가는 세 가지 대답이 모두 마음에 들어서 그것을 그리기 위해 붓을 들었습니다.

세 가지를 합쳐놓은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그리기로 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어떻게 합쳐서 하나의 그림으로 그릴 수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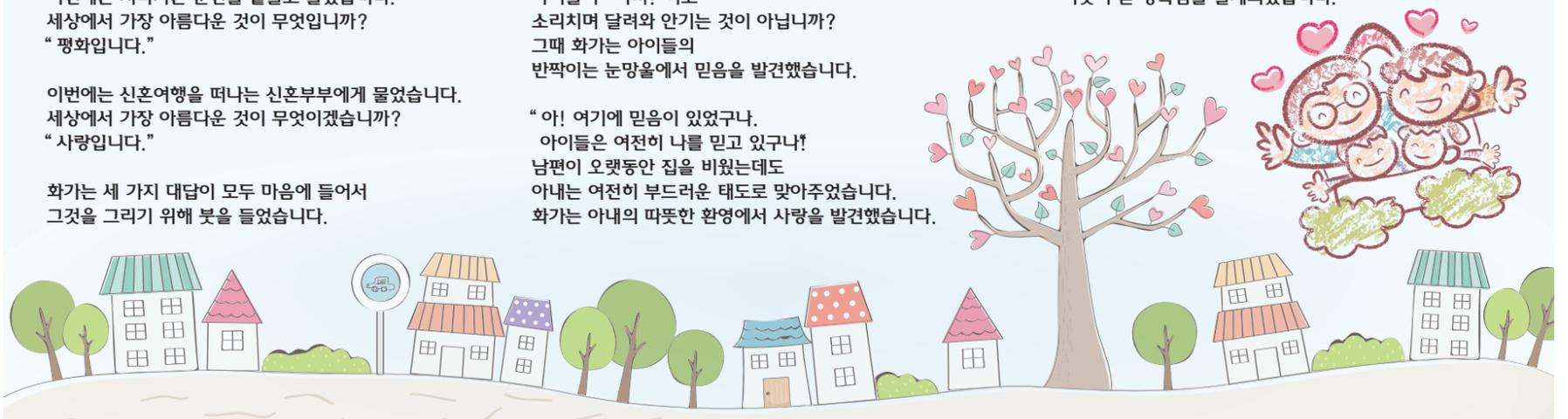
아무리 생각하고 헤매 다녀도 이 세 가지를 모두 모아놓은 그림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돌아다니다가 결국 포기하고 아무것도 그리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지친 몸으로 힘없이 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아이들이 "아빠!"하고 소리치며 달려와 안기는 것이 아닙니까? 그때 화가는 아이들의 반짝이는 눈망울에서 믿음을 발견했습니다.

"아! 여기에 믿음이 있었구나. 아이들은 여전히 나를 믿고 있구나! 남편이 오랫동안 집을 비웠는데도 아내는 여전히 부드러운 태도로 맞아주었습니다. 화가는 아내의 따뜻한 환영에서 사랑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아내가 있는 집에서 오랫동안 지친 몸을 편안히 쉴 수 있었습니다. 아내의 사랑과 아이들의 믿음 속에서 평화를 얻은 것입니다. 비로소 그 화가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가정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화가는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을 화폭에 담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아름다운 것을 찾아 헤멜 필요가 없게 되었고 이것이 곧 행복임을 알게되었습니다.





青松沈氏奉翊大夫公(諱:晟)派 鐵原宗會



鐵原宗會 相夏 會長

- ◆ 탐방일: 2014년 12월 19일 (금요일)
- ◆ 탐방장소: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양지리 산31번지 설단(設壇)
- ◆ 탐방종회: 青松沈氏奉翊大夫公派 鐵原宗會
- ◆ 참석자: 會長 相夏 外 9人
- ◆ 탐방자: 대종회 문화이사 光燮, 대종회 총무이사 彥泰

1. 青松沈氏奉翊大夫公(諱:晟)의 史蹟과 鐵原宗會의 構成

시조(始祖)이신 휘 홍부(諱:洪孚)의 작은 아드님 이신 휘 성(諱:晟) 봉익대부공께서는 생년·졸년·행적(表德·生卒·行蹟)과 배위(配位) 성씨를 잃어버렸으므로 7백여 년 동안 제향도 받들지 못한 채 지금에 이르렀으며 그나마 족보에 벼슬이 고려조의 벼슬로 종이품(從二品) 봉익대부(奉翊大夫)로만 기록되어 있을 뿐 나머지는 상고(上考)할만한 증거가 없으나 곳곳에 있는 奉翊大夫公의 사적으로는 이런 기록들이 있다.

①봉익대부 심공 휘 성, 상호군 심공 휘 경, 양세 망단비(함경도 단천에 있음) (奉翊大夫 沈公 諱 晟, 上護軍 沈公 諱 卿 兩世 望壇碑, 함경도 端川)

시조(始祖) 문림공 휘 홍부(洪孚)는 그 아들이 봉익대부 휘 성(晟)이고 손자가 휘 경(卿)인데 이二代는 숨어 살며 세상을 멀리해 전함이 없고 제사도 지내지 오래였으며 남북의 파가 번창했으나 진실로 그 근본이 같은 것을 잊고 다만 생각하는 것이 짐승과 같아진지 오래되었으므로 남북의 모든 일가가 서로 의지해 세일사(歲一祀)를 행하는 것을 떳떳한 것으로 삼고 같이 비석을 세워 같이 사모했으니 어찌 다만 무덤에서 춘추로 제사 지내는 것만이 또한 깊이 슬퍼하는 것이리오. 이에 제사를 지내기로 합의하니 스스로 정리(情理)가 맞아 우러러 바라봄에 엄숙해 혼백이 있는 것 같았다. 자손이 모두 모여 신주에 빌었으니 추원(追遠)하는 정성을 어떻게 감히 싫어했으리오. 라는 망단비록이 있고,

②청송심씨 보소통문(青松沈氏 譜所通文) (단천 입북시조 전서공 제향 전(田) 토지대장 등본)

다음과 같이 통고합니다. 씨족에게 족보가 있는 것은 조상을 숭상하고 가깝고 먼 일가를 막론하고 화합하는 길을 만드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진실로 여기에 혹 소홀함이 있으면 한 조상에서



제단 앞에서 좌로부터 ①副會長:在澤, ②監査:相五, ③監査:相珉, ④總務理事:相國, ⑤理事:相寅, ⑥大宗會 總務理事:彥泰, ⑦理事:相郁, ⑧理事:相候, ⑨會長:相夏, ⑩理事:相圭, ⑪名譽會長:相郁, ⑫大宗會 文化理事:光燮

나왔으나 길가는 사람과 같은 것이니 두렵지 않을 수 있겠는가. 우리 일가들이 족보를 한지四十여 년이나 되었다. 낡아서 자라고 늙어서 죽는 것이지만 족보에 나타나지 않은 사람을 위해 옛 족보에 이어 다시 닦는 것이 어찌 우리 일가들의 오늘날 급한 일이 아니겠는가. 이로써 서울 宗會에서 회의 한 뒤 즉시 경향(京鄕)의 여러 종중 간에 중간(重刊)할 것을 통고해 여러 파의 단자(單子)가 이미 도착했으나, 관북(關北)의 여러 파는 본시 文林郎 第二子 봉익대부 휘 성(晟), 第二子 상호군 휘 경(卿)의 지지포(之浦) 지백(之伯 휘 성의) 형제는 영락(永樂) 乙亥年(1419년)에 입북(入北)한 과거가 분명하나 그동안 수차의 수보시(修譜時) 길이 멀다 해 단자가 늘 족보를 발간한 뒤에 도착했으므로 원보(原譜)에 들어가지 못해 일가 간에 화합하는 일이 도리어 평등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한탄이 있었으니 여러 일가께서는 속히 수단을 보내어 후회하는 폐단이 없게 하심이 어떻겠습니까. 범례는 조목별로 왼쪽에 기록했으니 여러 일가께서는 이로써 양지(諒知)하시고 보신 뒤에 같은 도의 종중에 전해 보게 하고 알지 못해 못했다는 한탄이 없게 해 주시오.

癸酉年(1873년) 六月 日

③이외에도 금봉산소 유적(錦峯山所 遺蹟), ④삼공신(三功臣)이 단천으로 살 곳을 정한 사실, ⑤단주읍지등본(端州邑誌等本), ⑥신보서문(新譜序文), ⑦계유년(癸酉年, 1873년)에 붓으로 쓴 족보서문, ⑧신보발문(新譜發文) 등의 기록이 있을 뿐 명확한 내용이 없어 안타깝다.

다만 4세조 청성백 휘 덕부(靑城伯 諱 德符)께서 고려조 충숙왕(忠肅王) 무진생(戊辰生:1328년)임을 미루어 생각할 때 공께서는 원종(元宗)내지 충렬왕(忠烈王:1260년~1300년) 사이에 출생하신 것으로 추정되고 함경남도 단천 지역에 사셨던 것으로 판단되나 남북 분단이후 그 사실도 확인할 수 없으니 후손으로서 매우 안타까울 뿐이다.

이에 후손들은 어쩔 수 없이 설단(設壇)을 설립하여 제향을 받들고 있으며, 많은 종원의 고향이 북한이기에 망향(望鄕)의 한(恨)을 품은 채 봉익대부공(諱:晟)의 제향을 모시며 그 후손들로 구성된 특이성 있는 종회이다.

2. 青松沈氏奉翊大夫公派 鐵原宗會의 설립동기

青松沈氏 2세조 봉익대부공(諱:晟)과 철원종회는 봉익대부공 후손들로 구성되어 선조님의 유업을 이어받아 경조정신과 동종 간의 상부상조하는 共宗의 정신을 함양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하였다.

3. 青松沈氏奉翊大夫公派 鐵原宗會의 연혁

수북 이후 양지리 군량동과 모릉동 거주 후손들이 모여 친목회 형식으로 면면히 이어오다 1978년 이후 정관을 만들어 철원군청에 사회단체로 등록하고 青松沈氏奉翊大夫公派 鐵原宗會로 출범한 이후 활성화



종회탐방모습 좌측아래부터 ①監査:相五, ②理事:相寅, ③大宗會 總務理事:彥泰, ④大宗會 文化理事:光燮, ⑤副會長:在澤, ⑥理事:相圭, ⑦名譽會長:相郁, ⑧會長:相夏, ⑨理事:相候, ⑩理事:相郁, ⑪監査:相珉, ⑫總務理事:相國,

화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특히 1993년 10월 17일 설단을 설치해 봉익대부공 선조님 이하 실전된 선조님의 시제를 모시는 후로는 종회가 활성화 되어 대종회 주관 제향 등의 행사에 계속 참여하고 있으며, 현재 회의참석 종원은 40여 명으로 의지에 나가 있는 종인을 합하면 천여 명 이상으로 추정된다.

4. 青松沈氏奉翊大夫公派 鐵原宗會의 조직

名譽會長:相郁(大宗會 副會長) 會長:相夏 副會長:在澤 監査:相珉, 相五 理事:相候, 相郁, 相寅, 相圭, 相範 總務理事:相國 으로 구성되어 있다.

5. 青松沈氏奉翊大夫公派 鐵原宗會의 회의기구 및 연중행사

정기총회, 임시총회, 이사회 등을 두고 있으며 정기총회는 년 1회 개최하며, 임시총회와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 시 소집해 각급 회의의 의견을 취합 결의하여 종사에 반영하고 5차 모소 제향 참배, 대종회의 각종 행사에 적극 참여하면서 봉익대부공 발초 및 시 제향도 정성을 다해 모시고 있으며, 다른 조상님의 묘소를 한곳으로 모시기 위해 천장(遷葬)할 곳의 묘역조성 공사를 2014년 완료해, 2015년부터 2016년 사이에 모든 조상님을 한곳으로 모셔 후손들이 묘역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6. 青松沈氏奉翊大夫公派 鐵原宗會 상하 회장 의 종인에 대한 바람

종인들의 화합과 단합을 통하여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선대묘소를 한곳으로 천장해 드려서 후손들이 묘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재정이 나아지면 재실을 지어 철원지방에 명실상부한 명가로 남기를 바라는 마음이니 젊은 종인들이 더 많이 종사에 참여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7. 青松沈氏奉翊大夫公派 鐵原宗會에서 대종회 에 바라는 사항

대종회에서 청송심문에 대한 교육 자료를 발췌해 보급해 주시면 우리가 명문가의 자손임을 후손들에게 가르치고 송조돈목 정신을 더 확고하게 고취시켜서 이 사회의 떳떳한 구성원으로 긍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힘쓰고자 하오니 青松沈氏奉翊大夫公派 鐵原宗會에 지속적인 큰 관심과 꾸준한 교류를 당부드립니다.

8. 일가 여러분께

青松沈氏奉翊大夫公派 鐵原宗會는 북한에 적을 둔 종인들이 대부분이기에 재력으로나 종회구성에 여러 모로 미흡한 점이 있음에도 한 조상님 같은 뿌리임을 인정해 주시고, 대종회를 중심으로 十畵一飯 한 자손 같은 일가로 보듬어 주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조상님 모심에 더 매진하겠다는 소신을 밝혀드립니다.

9. 探訪所見

지역적으로 더 차가운 겨울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일가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덕담과 함께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해주셨음에 무사히 종회탐방을 마치게 되어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며, 어느 종회탐방 때보다 한 핏줄이라는 뜨거운 정을 느끼며 상하 회장님을 비롯한 참석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14년 12월 19일

次期 112號 宗會探訪 豫定
十二世祖 諱 仁補(礪山郡守公)
2015年 3月 中旬 會長 正輔
탐방자 대종회 문화이사 光燮, 대종회 총무이사 彥泰

나의 뿌리를 찾아 떠난 靑松 探訪記

순천은 대한민국에서 생태도시로 유명하고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고장으로 선정된 곳입니다. 순천시 종친회장 심일섭 님으로부터 청송탐방 계획을 연락 받고 2014. 11. 15. 07:30 중학교 2학년 아들과 함께 청송을 다녀온 심재성입니다.

관광버스 안에는 순천지역 종친 24명이 함께 동승했고, 가는 도중에 회장의 종친가족 소개와 개별 인사가 있었고, 사전에 준비한 청송심씨 「나의 뿌리를 찾아서」란 자료를 나누어 주고 우리가 방문할 청송군 소개와 시조묘소, 사적지 등에 관한 자세한 설명과 종친 간의 친교를 맺는 시간을 갖게 됐다.

순천을 출발하여 4시간 여 만에 버스는 청송읍에 있는 찬경회관 앞에 도착하여 '재홍' 관장님의 안내로 회관 3층에서 청송심씨의 시조묘소(諱:洪孚), 중대산소, 찬경루, 만세루, 송소고택에 대하여 사진을 보여주시며 친절히 설명해 주셨다.

회관 1층 식당에서 소고기 전골로 점심을 맛있게 마치고 관장님의 친절한 안내로 시조묘소와 사적지 방문을 시작했다. 시조묘소는 보광산 주변 30만 평이 모두 문중의 산으로 시조묘소 이외에는 타인의 묘가

한기도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곳 종친들께서 산을 잘 관리한 결과로 감사하게 생각하며, 종친 모두가 시조묘소에서 참배를 드리고 묘소 주변의 산을 둘러보면서 우리 가문의 위엄을 짐작할 수 있었다.

이어서 중대산소 참배와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183호로 지정된 찬경루는 조선시대 관청 앞에 위치한 것으로 보아 심씨 가문의 위세가 대단했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었다.

조선시대 영조 왕 時 만석의 富를 누린 심처대의 7세손 송소 심호택이 1888년에 지은 건물은 원형 그대로 잘 보존되어 국가지정 민속 문화재 제250호로 지정 받았고 지금은 송소고택에서 방문객을 대상으로 각종 체험활동을 하는 장소로 제공되면서 청송심씨 가문을 알리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었다.

짧은 일정임에도 청송군의 대표적 관광지인 국립공원 주왕산의 용추계곡 단풍을 보고 저녁 10시 경에야 순천에 도착함으로써 모든 탐방을 마치게 되었으며, 종친어른들께 작별인사를 드리고 집으로 귀가하는 도중에 아들에게 오늘 탐방에 대한 소감을 물으니 나의 성씨에 대한 깊은 공부를 하게 되

었고, 학교 친구들에게 가문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자부심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나 역시 생전 처음으로 아들과 함께 청송을 다녀오기를 잘 했다고 생각하면서 앞으로 대중회에서 나 지역 종친에서 우리 가문 중·고등학생 모두에게 시조묘소와 사적지를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길 바라면서 조만간 우리 가족 모두 청송을 함께 다시 다녀올 것을 다짐 하였습니다.

순천에서 청송을 다녀온 재성 기고



순천에서 청송을 함께 탐방한 일행들과 함께

각종 찬조현황 (2014. 11. 22~2015. 1. 26 현재)

지로 종보찬조

재협	재금	기우	종섭	재철	란섭	영민	창욱	봉용	재운	상원	수영	동엽	상구	재춘	재권	창식	영만	재덕	진용	보일	어택	응식	재석	재욱	성기	상하	재운	상압	상호
재인	재완	청택	기천	의용	재학	재갑	갑식	영섭	재창	옹래	상동	덕녀	기우	광은	상만	재수	진섭	상동	상목	우섭	한성	홍달	상학	대섭	재수	준구	상기	재운	연욱
헌수	인옥	규진	재동	의석	규현	상협	성규	상학	윤섭	정규	재원	화선	길섭	의	유섭	호섭	현보	영보	준섭	운택	춘섭	상렬	상의	재영	상우	재창	강복식	연보	진철
호진	재신	상희	도섭	상정	상태	우학	창용	원섭	창보	기승	예섭	상기	중국	광영	기섭	홍일	재훈	보섭	상준	준섭	영식	명섭	현무	재보	일	재호	화복	연보	대보
정식	정시	상봉	우대	영구	재규	중식	태환	상준	재권	정식	대규	재철	재덕	기섭	재학	종일	재훈	재국	재수	상선	영식	세택	재길	극택	재혁	의해	수보	재복	규병
재화	정식	의원	홍섭	재동	대보	진택	운섭	길택	상길	택식	상섭	정자	재안	동	정선	명섭	제보	재국	재수	재길	재운	완준	재운	기대	무원	윤섭	대택	재덕	우석
상만	의철	홍석	삼복	인섭	상두	봉구	재익	유태	상돈	민섭	태섭	재석	남진	주택	오현	호택	규대	상덕	삼덕	무섭	재운	대식	재운	홍섭	하홍	일석	대택	재필	우현
규주	재갑	우정	웅섭	문식	정환	문환	덕보	재용	의락	길섭	승택	재국	주한	법섭	재진	태수	상덕	삼덕	무섭	재운	대식	재천	재학	창호	갑진	홍진	원보	근택	순보
현보	대보	재서	재남	재환	상욱	무식	재숙	상훈	재학	재철	연선	성섭	상태	규익	정택	재원	태섭	선래	경중	문식	재천	재학	창호	갑진	홍진	원보	근택	순보	호섭
육공	진섭	규승	재열	웅섭	상근	상만	중섭	영섭	원섭	민섭	국진	관섭	상우	규정	상덕	우만	일섭	수길	성보	성보	홍식	무영	영섭	금섭	진섭	우권	진섭	영주	성섭
영섭	재복	종래	정보	장규	중식	철구	언수	영택	재현	연춘	태보	재철	역수	은래	찬식	송보	재훈	재천	만복	문섭	의순	상훈	정철	동출	태섭	재운	정의	규양	규섭
재원	창섭	무식	재형	상은	영섭	상덕	순섭	규성	평택	상규	군보	택	상철	음식	재길	재현	영섭	재희	원섭	완섭	상훈	형석	정식	광보	상호	규원	재범	문섭	상순
지훈	재홍	상근	인보	완섭	우찬	양섭	상현	재길	정학	대섭	욱섭	순보	재섭	재덕	재하	민성	규성	정섭	우석	재춘	재천	이섭	광식	마산	금배	재천	창보	오섭	태섭
동혁	재돈	의구	홍섭	인섭	항래	홍섭	재근	재복	경보	중섭	재춘	홍구	상국	재현	동훈	문섭	정섭	우석	재춘	재천	무섭	재일	이섭	광식	마산	금배	재천	창보	오섭
해섭	종택	재길	상훈	원중	진식	언배	정섭	상화	동식	정우	정진	재섭	정석	항석	윤섭	석천	원택	정이	상학	재천	무섭	재일	이섭	광식	마산	금배	재천	창보	오섭
호택	상경	익수	재춘	한석	명보	상언	석중	주섭	성래	창래	규만	종만	재봉	상훈	한식	재국	수의	종식	재천	석보	재운	계택	상진	훈	경보	만섭	상석	상한	재원
무성	남식	재석	재국	영섭	재운	공섭	정섭	민섭	장식	왕섭	형섭	재춘	창수	서섭	은석	재권	윤도	성열	재일	석보	재운	계택	상진	훈	경보	만섭	상석	상한	재원

임원회비

회장(3,000,000)	갑보 - '15년도분
부회장회비(300,000)	상근, 의철, 친구, 재면 - '14년도분, 상욱 - '15년도분
감사회비(200,000)	현보(갑사) - '14년도분
이사회비(50,000)	용택(경기), 상훈(경기), 강섭(경기), 상서(경기), 준섭(광주), 춘식(서울), 수영(전북), 성기(강원), 상학(충북), 홍섭(경북), 정섭(전남), 중섭(충남), 성섭(부산), 재영(충남), 재덕(부산), 진식(광주), 갑택(충남), 영중(충남), 종홍(경기), 형구(서울), 윤택(충남), 재봉(서울), 성택(대구), 재중(충남), 영택(경기), 안보(전북), 중근(충남), 규일(전북), 규성(인천), 동출(강원), 재화(경남), 화선(경북), 영구(서울), 이섭(인천), 정수(전북), 백섭(서울), 점보(경남), 규실(경남), 호웅(대구), 광보(경기), 상규(인천), 재홍(서울), 홍섭(충북), 길섭(경남), 재룡(충북), 재혁(충북), 재신(서울), 재덕(충북), 재무(충북), 성보(경기), 성보(서울), 기백(전남), 상소(강원), 영수(경기), 수일(전북), 홍섭(경기), 기관(전남), 윤택(충남), 태수(전남), 재복(충북), 홍택(충남), 재근(경기), 중근(전북), 강수(인천), 완규(서울), 경섭(인천), 만인(부산), 형찬(경기), 웅섭(서울), 의경(부산), 재판(경남), 재모(경남), 무섭(경남), 재영(부산), 재학(전북), 종택(서울) - '14년도분, 무식(강원), 상학(서울), 상경(서울), 응하(경기), 종욱(경기), 석문(인천), 석용(경기), 석희(경기), 중근(충남), 상하(강원), 재택(강원), 상국(강원) 상민(강원) - '15년도분

청성백 재각건립 헌성금

공속공중중 회장 응섭	50,000,000
대중회 회장 갑보(개인)	10,000,000
상협(서울)	200,000

장학찬조

경북구미(무명)	7,000,000
수운관공파마산중회(회장 규실)	500,000
인천중회 회장 응무	300,000
진천월촌중회(회장 상영)	300,000
주섭(경기)	100,000

중보찬조

500,000	재서(재무이사) 정이공파비리중회(회장 석문) 차지환
300,000	인천중회(회장 응무) 구미중회(회장 재훈) 수운관공파마산중회(회장 규실) 청주중회(회장 재룡) 철원중회(회장 상하)
100,000	상춘(경기) 논산익모중중(회장 동섭) 상학(서울)
60,000	강채(전남)
50,000	병호(충북), 상철(경북), 상소(강원) 인섭(대전), 덕섭(경기), 극택(경기) 광보(전북), 상경(서울), 준섭(광주) 현섭(경남), 만인(부산)
40,000	진태(경남)
30,000	웅(인천), 상진(인천), 화석(경북) 규석(경기), 무수(경북)
20,000	현석(대구)
10,000	규성(인천), 승희, 준구(인천) 홍섭(경기), 태섭

청성백 재각건립 헌성금

중보·장학금 50만원 이상 찬조 종인(2회) 사진게재

갑보 대중회 회장 (개인)	공속공중중 (회장 응섭)	대중회 재무이사 (재서)	정이공파비리중회 (회장 석문)	인천중회 (회장 응무)	수운관공파마산중회 (회장 규실)	대중회이사 (재금)	충남당진중회장 (영택)	선무공파비리중회장 (재호)
1천만원	5천만원	중보찬조 5십만원 2015년 1월	중보찬조 5십만원 2015년 1월	장학, 중보찬조 6십만원 2015년 1월	장학, 중보찬조 8십만원 2015년 1월	장학찬조 1백1십5만원 2014년 11월	장학, 중보찬조 1백8십만원 2014년 4월~11월	장학, 중보찬조 1백만원 2014년 9월~11월



얼굴 없는 장학금 기부천사

얼굴 없는 기부천사가 거액의 장학금을 쾌척(快擲)해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누군가 실수(失手)로 잘못하여 무통장으로 70만원을 입금시킨 사실을 알게되면 얼마나 걱정을 할까? 하는 마음으로 대중회 상임임원들은 전화기 벨소리에 신경을 쓰면서 하루하루 궁금해 하고 있었는데 70만 원씩 10일 동안 총 700만 원이라는 거액(巨額)이 입금됐습니다.

입금하신 분이 누구인지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하여 입금은행에 문의해보니 그분의 하루 이체 가능금액이 70만 원인데 언제까지인지 모르겠으나 매일 70만 원씩을 장학금으로 송금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을 뿐 모든 사항은 비밀로 하라는 당부가 있었다며 '94세 되신 할머니' 라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려 줄 수 없다는 은행직원의 말이었습니다.

이 노령의 할머니는 어떤 분이실까? 왜 얼굴 없는 기부를 하셔야 할까? 자식들은 없는 분일까? 수많은 물음표 속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분명한 것은 청송심문의 후학양성에 그 기금이 효율적으로 정확히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과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장학 사업을 영구히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의무를 부여받았다는 것입니다. 여생을 위해 쓰셔도 넉넉지 않을 금원을 장학금으로 기부해 주신 할머니의 고귀한 마음을 우리 심문의 일가들은 더한층 승화(昇華)시켜야 할 막중한 책임이 부여 되었음을 마음속에 각인(刻印)해야 할 것입니다.

그분의 은덕을 입은 우리 심문의 학생들은 더욱 학업에 매진하여 장차 이 나라의 기둥으로서 국가발전에 기여한다는 마음가짐을 다져야 하며, 그것이 그분의 은덕에 보답하는 하나뿐인 길일 것입니다.

할머니의 정성과 숭고한 뜻을 받들어 훌륭한 후손양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송심씨대중회

족보 재고 저가보급 안내

2000년 경진보 족보 재고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직 족보를 구입하지 못하신 분은 조기에 품절될 수 있으니 속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질 11권 6만원이며 택배로 무료 배송해 드립니다.

대중회 총무이사 彦泰



축하합니다

심인보(沈忍輔) 제58회 행정고시 합격



청송군청에 근무하는 심남규 님의 장남 인보(27세)군 제58회 행정고시 합격



심준택(沈準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김포시협의회 의회 간사 / 2104년 12월 19일 국민훈장 동백장 수여



심혜경

경기 김포 덕섭의女 혜경 영상예술학 박사 학위 취득

공지사항

2015年度 春季 享祀日 案内

2015년도 춘계 향사 일정표는 우선 대중회 주관 제향 일정만 공지합니다

世	휘(諱)	陽曆	陰曆	曜日	場所	主管
始祖	文林郎公(諱:洪孚)	04.06	寒食	월	청송군 청송읍 덕리 산33, 보광산	大宗會
	中臺山(臺所)	04.06	寒食	월	청송군 청송읍 부곡리 산1, 중대산	大宗會
二	閔門砥侯公(諱:淵)	04.29	03.11	수	익산시 함열읍 남당리 산64-1, 남당산	大宗會
三	靑華府院君(諱:龍)	05.01	03.13	금	경기도 안성시 당왕동 산19-6, 묘전	大宗會
三	靑華府院君 配位 金氏	05.01	03.13	금	경기도 안성시 도기동 산64, 묘전	大宗會
四	靑城伯(諱:德符)	05.03	03.15	일	경기도 연천군 미산면 아미리 산110	大宗會
四	靑城伯 配位 淸州 宋氏	05.05	03.17	화	청주시 서원구 매봉로 28 계룡리슈빌A 204동104호(재실)	大宗會
四	岳繼公(諱:元符)	05.13	03.25	수	청송군 파천면 덕천리 景義齋	大宗會

★時享 奉享時間 : 始祖 12時(正午) 그 외는 午前 11時에 奉享함★

인터넷 족보 수단접수 안내

청송심씨대중회에서 관리하는 인터넷 족보는 매3~5년마다 추가로 등재합니다.

추가 등재 시 마다 기본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매년 등재하지 못함을 양지하시고 금년에 많은 분들이 등재하시길 바랍니다.

책으로 엮어 발간하는 족보는 향후 수십여년 간격으로 별도의 수단과정 없이 인터넷 족보를 인쇄하는 형식으로 발행될 것입니다.

따라서 그동안 등재하지 못했던 분들은 아래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등재신청 안내 ---

- 수단 접수기간 : 2015년 6월 1일~11월 30일 (6개월 간)
- 제출서류
 - 가. 인터넷 족보 수단용지 (별지서식)
 - 나. 가족관계증명원 또는 재적등본 등 공문서
 - * 등재자의 모든 인적사항은 공문서 기준으로 등재되며, 공문서 외의 파보, 가승 또는 집에서 관리하는 사문서 등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다. 수단금 납부 증빙서류 또는 납부확인서
- 제출방법
 - 가. 우편 : 서울 중구 을지로 30길 47 (우편번호 : 100-310)

나. 팩스 : 02-2269-7755

4. 수단록 작성방법

대중회 홈페이지(www.cs Shim.or.kr) 인터넷 족보(추가등재 신청) 메뉴에 공지한 수단용지(갑, 을)를 다운받아서 수단작성 방법(견본)을 참조하여 작성

5. 수단금 납부

가. 수단금 : 관(冠) 20,000원
동(童) 15,000원

나. 계좌번호 : 농협 301-0164-0584-31 (청송심씨대중회)

6. 유의사항

가. 수단록 제출 시 수단금 납부 영수증 사본 등 증빙서류를 동봉하여 주시기바라며, 수단록만 제출하신 분은 인터넷 족보에 등재되지 않습니다.

나. 2011년도 이후 대중회에 인터넷, 메일, 우편 등을 통하여 기 인터넷 등재 신청하신 분께서도 2015.6.1~11.30까지 위 안내 요령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의문사항은 청송심씨 대중회 총무 이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송심씨대중회 총무이사

대중회 명의신탁 부동산 정비계획

2015년도에는 대중회 소유의 토지이면서도 각종 여건에 의하여 대중회 명의로 등기하지 못하고, 개인 명의 또는 몇 사람의 지분 명의로 명의신탁된 토지를 일제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에 아래에 게재된 분들의 당사자나 배우자, 자녀, 또는 그분들의 연락처(전화번호, 주소)를 알고 계시는 분은 대중회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靑松沈氏大宗會

성명	주소	비고
심상천	서울 마포구 성산동 234-31번지	
심신택	전북 옥구군 라포면 부곡리 456	군산시에 통합
심주택	경기 수원시 성호면 봉리 239번지	
심학운	전북 군산부 영정2동목 112번지	
심상익	경기 경성부 흥원정 113번지	
심주섭	전북 옥구군 라포면 부곡리 139번지	군산시에 통합



萬枝松 그늘에서



진주향교 사무국장 沈東燮의 松原散稿(VI)

심백강 박사 <교과서에서 배우지 못한 우리역사> 출간



'국가교과서'가 잘못 가르치고 있거나 또는 당연히 가르쳐야할 내용을 가르치지 않는 것을 바로잡고 보완하기 위해서 집필

인천중회 임원 개선

회 장 : 응무
부회장 : 명구, 대식, 육환
상 국, 재중
총 무 : 이섭, 경수 등

경북 구미중회 임원 개선

회 장 : 재훈(載勳)
감 사 : 창석(昌錫)
총 무 : 재홍(載洪) 외 12人



110호 중보

1면 連川→漣川
5면 集禮→執禮, 集事→執事

송금안내

청성백 정안공 재각건립 헌성금 입금계좌

청송심씨대중회

농 협 : 301-0159-0778-41

송금안내

임원회비·종보찬조·장학찬조·족보대금 등 입금계좌

청송심씨대중회

농 협 : 301-0107-5873-71